



대림 제2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 12/13(수):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 12/14(목):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 성탄 꽃봉헌 받습니다.

- 기간: 12/3(주일) ~ 12/10(주일)

■ 2018년도 매일미사 책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2/10(주일) 까지,
- 가격 : 60달러/년,
- 전례부원에게 주문바랍니다.

■ 대림시기 성경쓰기

- 범위:야고보 서간, 베드로 서간, 요한 서간, 유다 서간.
- 방법: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1-2쪽 씩 쓰기.
- 봉헌: 성탄성야 미사 봉헌예절 시.

■ 중남부지구, '제18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피정'

- 주제: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 기간: 2017/12/26(화)~28(목) 2박 3일 간,
- 참가비: 270달러/인.
- 장소 및 문의: Holy Name Retreat Center in Huston, 713-834-5430 흥권의 레오 (게시판 참조).

■ 성당행사 관련 사진 자료를 수집합니다.

- 내용: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례부장(박 로마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taeju@postech.ac.kr

■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 내용: 교무금은 신앙인이자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 구역별 판공면담 및 성사 안내

- 일정: 3구역: 12/15(금)오전10:00~저녁08:00, 4구역: 12/16(토)오전10:00~저녁08:00.
- 장소: 본당 나자렛 교육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92	221	152	481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전용진 로렌스 조진환 베드로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이경남
차 주	백문주, 최은미, 김진미, 윤지선

■ 헌금 봉사자

금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03	55명	275달러	1,190달러
김동술, 이내익, 김진미, 차호섭, 김화년, 김창식 (총 6세대)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사회 교리 주간)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2월 10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 주일입니다. 모든 위로의 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뱃길을 걷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어,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메시아를 고대하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마르 1,4-5)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께서 성탄축일에 오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오시며,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물로 세례를 주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성령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0,1-5.9-11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 독 서 :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3,8-14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쉐 마

'새 하늘 새 땅' 깨어 기다리자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에 유배를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유배생활이 끝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느님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유배지에 끌려오게 된 이스라엘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그들의 짓값이 치러졌음을 알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며, 거친 곳을 평지로, 험한 곳을 평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덕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키루스가 바빌론의 수도로 들어오는 순간 해방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온이 외치던 기쁜 소식, 예루살렘이 외치던 기쁜 소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배를 끌려가지 않았던 거류민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이방민족들에 짓밟히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일까요? 그들은 다시금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 지 500여 년이 지난 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온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짓값이 치러지게 될 날이 다가오리라고 말하며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일, 곧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메시아를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곧게 내고, 당신의 길을 마련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곧 주님의 날에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마지막 날, 곧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약속을 미루시어 재림의 날을 연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하느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 당신 약속을 미루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2베드 3,11)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 번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날에 주님을 잘 맞이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날에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분의 날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거짓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느님께서 이루어 오신 참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리산책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감과 설렘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자유를 원하시지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인 자유는 이성과 의지에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자,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하는 능력이며, 이처럼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31항)

자유롭게 존재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지닌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사랑으로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유 안에서만 인간은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정치적·사회적·재정적·법적·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항상 제한받고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자유를 앗아 가거나 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불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그 인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의지와 이성을 활용해 참으로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최종 선이신 하느님께 결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덕을 향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으로, 칭찬이나 비난 혹은 공로나 허물의 근거가 됩니다. 작가 버나드 쇼는 바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하느님이 마련해 두신 세상의 방식, 곧 자연법과 창조 질서에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인간안에 있는 진리의 목소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쓰여 있는(로마2,15 참조) 자연법입니다. 우리는 양심 안에서 이성을 통해 모든 시대에 선하게 여겨진 가치들을 인식합니다. 속이는 것, 빼앗는 것, 죽이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양심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자유도 항상 선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기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양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참된 가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로 참된 선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이 필요합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



복음묵상

길

길은 걸어가는 길이고
 길은 이해하는 방법이고
 길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길은 그분이 걸어오시는 길이고
 길은 그분에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길은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길은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길은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시작이고
 길은 그분을 알아차리는 은총의 시작입니다.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마르 1,2)

